

##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접속부사의 의미기능

문 숙 영\*

이 글은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접속부사의 의미기능을 살펴본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집성-기반 접근에서 접속부사의 기능을 담화 단위의 연결 장치로 보아 온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관련성 이론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에서의 추론의 힘에 대해 소개하고, 접속부사를 절차적 의미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접속부사가 연결하는 대상이 선행 문장/담화의 명제적 내용 외에, 함의, 함축, 전제 등과 연결되기도 하며, 때로는 무엇을 연결하는지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통해, 접속부사의 기능이 추론의 유형을 안내하고 선후행 담화의 해석의 범위를 제약하는 데 있음을 밝힌다. 셋째, 접속부사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쓰는 것이 좋은 환경도 있는데 이것 역시 추론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논의한다. 넷째 접속부사가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범주로 담화표지와 메타담화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접속부사의 담화표지화와 같은 표현이 원칙적으로 모순일 수 있음을 밝히고, 메타담화 논의를 바탕으로 그간 접속부사 유사 표현으로 의심받아 온 것들이 접속부사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논의한다.

핵심어: 접속부사, 관련성 이론, 절차적 의미, 개념적 의미, 응집성 장치, 메타담화, 담화표지

## 1. 서론

본고는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의 관점에서 접속부사의 의미 기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접속부사는 텍스트의 응집성을 위한 담화 연결 장치라기보다 추론의 유형을 안내하는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한 형식이라는 것이 본고의 기본 입장이다.

오래 전부터 접속부사는 비-진리조건적인 요소로 처리되어 왔다. Grice (1975)에서는 접속부사의 의미를, 명제의 진리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념적 표상의 일부인 고정함축으로 분류한다. 취소 가능한 대화 함축과는 달리 접속부사의 의미는 취소될 수 없고 해당 어휘와 분리할 수도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텍스트-응집성 기반 연구에서는 접속부사의 기능을 선후행 담화를 연결하는 장치로 분석해 왔다. 그러나 Sperber & Wilson(1986)의 관련성 이론 이후, 접속부사의 의미의 종류로 절차적 의미가 제안되었다. 관련성 이론은 화청자 사이에 전달되는 것은 명제적 내용이 아니라 ‘사고’이며, 이는 화자의 의도에 도달하려는 청자의 추론에 의해 얻어진다고 본다. 이때 ‘관련성’이란 이런 추론과정에서 청자로 하여금 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만들어주는 특성이다. 관련성 이론을 바탕으로 Blakemore(1987, 1992)에서는 언어 형식의 의미를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로 대별한다. 그리고 절차적 의미를 부호화하는 형식으로 대명사, 접속사, 지시어 등을 지목한다.

본고는 접속부사가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하는 언어 형식이라는, 관련성 이론 지지자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이를 밝히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접속부사의 기능을 응집성 장치로 보아 온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3.1.에서는 관련성 이론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에서의 추론의 힘에 대해 소개하고, 접속부사를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하는 언어 형식으로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접속부사가 연결하는 대상이 선행 문장/담화의 명제적 내용 외에, 함의, 함축, 전제 등과 연결되기도 하며, 때로는 연결 대상이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밝혀, 절차적 의미로의 분석을 지지할 것이다. 3.2.에서는 절차적 의미에서도 유

의 관계 및 다의어가 가능함을 기술하고, 접속부사의 생략 가능성과 출현이 권장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4장에서는 접속부사가 주요 성원으로 거론되는 다른 범주인 담화표지와 메타담화를 다룬다. 4.1.에서는 접속부사의 담화표지화와 같은 표현이 원칙적으로 모순일 수 있음을 논의하고, 4.2.에서는 메타담화 논의를 바탕으로 그간 접속부사 유사 표현으로 의심받아 온 것들이 접속부사와는 다른 것임을 밝힌다.

## 2. 응집성-기반 설명의 한계

접속부사가 문장이나 담화의 의미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응집성(coherence) 기반의 분석과 관련성 이론 기반의 분석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접속부사를 텍스트의 응집성 장치로 바라본다. 반면에 후자는 접속부사의 의미를, 해석의 추론 과정을 안내하는 절차적 의미(procedural meaning)로 다룬다. 응집성 이론에서는 접속사가 선행 담화 단위와 해당 발화를 연결한다고 본다면, 관련성 이론에서는 (언어적/비언어적) 선행 문맥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Blakemore(1992, 2002), Rouchota(1996)를 바탕으로, 접속사를 응집성 장치로 볼 수만은 없는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텍스트의 응집성은 접속부사의 출현과 무관하게, 텍스트라면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텍스트성의 일종이다.<sup>2)</sup> 이는 접속부사가 없더라도 문장 간의

1)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cohesion(결속성)과 coherence(응집성)을 구별한다. 일례로 Halliday & Hasan(1976: 333-339)에서는 문장들의 관계를 결속시켜 주는 자질을 결속성이라 하고, 이에 활용되는 요소를 지시, 대치, 생략, 접속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검토한 접속부사 관련 논문에서는 두 술어 간의 구별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논문에서 별도의 언급 없이 두 개의 술어를 섞어 쓰고 있어, 본고에서도 구별하지 않고 ‘응집성’으로 번역 술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 Beaugrande & Dressler(1981)에서의 텍스트성은 ‘결속성(cohesion), 응집성(coherence),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황성, 간텍스트성’ 7가지이다. 조원형(2013: 216-219)은 Beaugrande(2004)의 견해를 따르면 텍스트성은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 텍스트에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하는 속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의미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데서 확인된다. 아래 (1)은 접속사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사가 쓰인 문례에서 접속사를 삭제해 본 것이다(여기서는 괄호 처리). 괄호를 빼고 읽더라도 의미 해석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의미 해석의 차이도 야기되지 않는다.

- (1) 이렇게 말하면, 『창세기』를 이 세대 사람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라 하는 말이 아닌가 하여 위험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① 염려할 것은 없다. 우리는 『창세기』의 문학을 읽는 것이 아니요, 그 정신을 읽는다. (그리고) ②근본정신은 뇌성이 물리학을 배운 후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있을 때와는 다른 의미로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 같이 변함없는 진리다. (그러면) ③『창세기』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함석헌, ‘역사와 민족’ 중에서)

후행 담화를 해석할 때는 선행 담화의 해석을 포함한 문맥 정보가 활용된다. 이 때문에 접속부사 없이도 청자는 선행 담화의 의미 관계를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선행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어떤 단서도 가지지 않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해석에서도 확인된다. (2가)에서 ‘커피향’은 ‘백화점의 커피향’으로 우선적으로 해석되고, (2나)의 ‘강가’는 우리가 조깅을 한 곳으로 해석되는 것이 그러하다.

- (2) 가. 나는 백화점으로 걸어 들어갔다. 커피향이 가득했다.  
나. 우리는 점심 후 가벼운 조깅을 했다. 강가는 참 한가로웠다.

이처럼 배경 가정을 첨가함으로써 문장들의 내용 연결이 추론되는 현상을 ‘Bridging’이라 한다. 그리고 선행 담화의 표현과, 이와 연결고리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한정적 명사구와의 조응 관계는 ‘Bridging cross-

---

Beaugrande(2004: VIII.3)에서는 응결적이지 않은(incoherent) 텍스트도 응결적(coherent)일 수 있다고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reference'라고 한다. 이런 연결고리는 선행담화에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는 아니기에, 간접 조응(indirect anaphora), 추론적 조응(inferable anaphora)이라 하기도 한다(Hwang 2012: 43). 이런 예들은, 문장 간 의미 연결에는 추론이 작용하며 따라서 응집성을 위해 별도의 장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접속사가 없는 선행행 문장은 응집성이 없거나 표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미관계의 적절한 해석이 전적으로 청자의 몫으로 남겨진 것일 뿐이다. 예컨대 아래 (3)에서 ②는 ①의 원인이나 설명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①사건 이후의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③역시 세 번째로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①, ②와 대조되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순차적 사건' 해석이든 '인과관계' 해석이든 모두 응집성을 전제로 한 의미관계이다. 즉 접속사가 없다면 의미관계의 후보가 늘어 청자의 추론 과정에 번거로움을 더할 뿐, 아예 응집성이 있는지 여부부터 의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 ①나무가 쓰러졌다. ②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었다. ③집은 그대로다.

선행행 담화의 연결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해석은 늘 이를 뛰어넘는다는 점도(Blakemore 1992: 85) 접속부사를 응집성 장치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접속부사가 쓰였는데도 복원된 해석이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면, 접속부사의 응집성에의 기여가 무엇인지를 묻게 하기 때문이다.

(4) 가. Jane got on her bike and rode down the path.

나. The road was icy and he slipped.

(4가)의 'and'는 순차적 시간관계로 해석되지만 (4나)의 'and'는 인과관계로 해석된다. 즉 접속사가 쓰였지만 의미관계가 문맥에 따라 다르다. 이는 두 문장의 의미적 연결고리가 접속사가 아니라 앞뒤 문맥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and' 대신에

그저 휴지를 두어도 이 문장들의 응집성은 별로 반감되지 않는다.<sup>3)</sup>

이런 ‘and’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그리고 나서’ ‘그래서’ 등의 의항을 가지는 다의적 요소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접속사가 개념적 의미를 가진 형식이 되고 따라서 문장 의미에 기여하는 바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and’의 의미를 어휘적 중의성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많다.<sup>4)</sup>

- 어휘적 중의성은 전형적으로 언어-특정적인 반면에, ‘and’의 중의성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보인다(Blakemore 1992: 79). ‘and-접속’의 비대칭적 용법은 범언어적으로 보편적이다(Horn 1985).
- 이런 내포 의미는 모순 없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포적 의미는 휴지나 마침표가 ‘and’를 대신해도 일어난다(Grice 1975).
- ‘and-접속’의 다양한 해석의 요인은, 특정 낱말의 의미론과는 무관하게, 문맥 속에 존재한다(Sweetser 1990: 90).
- 이 외의 다른 내포적 의미도 가능하다.<sup>5)</sup> 만약 이들도 ‘and’의 다의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의미 범위가 너무 넓을 뿐 아니라, 비-병렬(non-conjoined) 연쇄에서는 왜 이런 의미 해석이 안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Posner 1980: 187).
- ‘and’의 여러 의미가 실제로 어떤 언어에서도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다의성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Sweetser 1990: 91).

3) Sanders & Noordman(2001)에서는, 담화 관계(discourse relation)가 담화 표상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담화 연결사의 역할은 ‘그저 청자로 하여금 바른 관계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정도라는 실험적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접속사가 쓰인 텍스트와 그것을 삭제한 텍스트를 주고, 어느 조건이 내용을 기억하는 데 더 유리한가를 본 실험인데, 접속사가 쓰인 구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이다.

4) 어휘적 중의성을 반대하는 아래 증거들에서 Grice(1975), Posner(1980)의 기술은 Blakemore(1992: 79)에서, Horn(1985)은 Sweetser(1990: 91)에서 제시된 것이다.

5) 예를 들면 “Simon was in the kitchen and he was making bread.”에서 ‘and’는 ‘그리고 거기서(and there)’로 해석되며, “Jane fell into a deep sleep and dreamed she was a seagull.”에서 ‘and’는 ‘그라는 동안에(and during this time)’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두 개의 사건이 나란히 제시될 때,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로 해석되는 일은 흔하다. 내러티브 어순의 도상적 관습과 인과관계의 논리적 도상성 때문이다. 내러티브에서 사건의 제시 순서는 대개 발생 순서로 해석된다. 또한 사건 두 개가 논리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앞의 것이 원인이나 전제, 뒤의 것이 결과나 결론이 되기 쉽다. 일례로 “바닥이 뽕뽕 얼어 있었다. 그리고 길 가는 자전거가 넘어졌다.”의 언어적 의미는 인과 해석에 대한 어떤 지시도 제공하지 않는다. ‘바닥의 얼이 자전거가 넘어진 원인이다’와 같은 의미가 화용적으로 보충되어야만 이런 해석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례를 보면 ‘and’가 ‘그러나 나서’나 ‘그래서’로 해석되는 것은 접속사의 개념적 의미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맥에서 화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sup>6)</sup>

응집성 기반의 연구자들에게 접속사는 두 개의 담화 단위를 연결하는 형식이다. 그렇다면 접속부사가 접속하는 대상은 인접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래 예에서 ‘하지만’의 접속 대상을 찾는다면 그 후보는 A의 처음 발화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왜?’라는 B의 질문이 있으므로 이어지는 A의 대답은 ‘왜’에 대한 답이기만 하면 된다. 앞선 발화와의 응집성을 위해 ‘하지만’이 필요한 그런 환경은 아닌 것이다. 게다가 A의 처음 발화나 B의 발화 뒤에 얼마든지 다른 발화가 끼어드는 것도 가능하다. 즉 접속 대상이 지금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현상들은, (5)의 ‘하지만’이 환기하는 것이 선행 발화와 연결하라는 신호라기보다, [학생이 성적이 좋다]와 어떤 식으로든 충돌하는 선행 사태가 존재함을 드러내는 데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5) A: 우리 학교는 원래 전입생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않는 주의여요. 새로운 학생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면 다른 전체 학생들의 학습에 지

6) ‘시간(계기)’과 ‘원인’ 사이의 중의성은 한국어의 연결어미 ‘-어서’나 영어의 ‘since’에서도 발견되듯이 드문 일이 아니다. Thompson, Longacre & Hwang (2007: 245-249)에서는 ‘when’ 의미의 종속접속사가 ‘원인’도 표시하는 언어나, 영어의 since처럼 동일형태소가 시간과 원인으로 모두 쓰이는 언어가 있다고 하였다.

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B: 그런가요? 그렇다면 왜…….

A: 하지만 학생은 아주 성적이 좋더군요. 전국적인 수학 경진 대회에서 우승을 두 번씩이나 했다니… 그래서 관례를 깨고 받아들이도록 한 거예요.

접속부사가 담화의 시작 부분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응집성 장치 중심의 설명이 가지는 한계이다. 담화의 시작 부분이란, Rouchota(1996: 204)의 정의에 따라, 화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이전의 자극(행동, 얼굴 표정 등)이 일절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아래의 예들은 선행 발화 없이 접속부사가 쓰인 것들이다. 문맥으로 제시된 행동은 청자에 대한 어떤 의도도 없이 무심코 이루어진 것들이다. 즉 아들, 딸, 고양이의 행위는 엄마의 주의를 끌거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 발화의 ‘그래도, 그러니까, 하기는’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모두 접속부사로 등재되어 있는 어휘들이다.

(6) 가. (문맥: 허둥지둥 준비물을 챙기고 나가려는 아들을 봄)

엄마: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나. (문맥: 딸이 냉장고에서 먹을거리를 이것저것 찾음)

엄마: 그러니까, 밥을 차려줄 때 먹으랬지?

다. (문맥: 친구 잃은 고양이가 힘없이 누워 있는 것을 봄)

엄마: 하기는, 너도 슬퍼 의욕이 없겠지.

Rouchota(1996: 204-205)는 영어에서 이런 담화의 시작에 연결사(connectives)가 쓰이는 일은 아주 흔한 용법이라고 하면서,<sup>7)</sup> 이런 쓰임은 응집성-기반 접근에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연결사가 두 개의 발화를 연결한다고 했는데, 이들 예에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

7) 이 글에서의 connectives는 접속사뿐만 아니라, ‘even, also, too’ 등도 포함한다.



면서 응집성-기반 접근에서는 이런 예들을 다룬 적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위의 예들에 대해 혹시 접속부사 용법에서 벗어난, 담화표지 같은 것이 아닌지를 물을 수도 있다. 접속부사 본래의 용법에서 다소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담화표지로 보는 태도에도 동의하지 않지만(4장에서 후술), 무엇보다 위의 예는 접속부사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이들이 접속부사로 쓰일 때의 의미와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차이라면 선행 발화가 없다는 점인데, 이것이 접속부사에서 제외할 근거가 된다면 이는 분명한 순환론이다.

### 3. 접속부사의 절차적 의미

#### 3.1. 추론적 의사소통과 절차적 의미

Sperber & Wilson(1986: 1장)은 발화에 의해 의사소통되는 것은 ‘사고(thought)’이며, 언어의 이해 과정은 기호 해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추론이 더해져야 한다고 본다. 기호 해독된 문장의 의미적 표상과 발화가 전달하려는 사고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말 떠나는군.”이라는 한 발화만 하더라도, 화자의 추측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떠난다는 결정을 알리기 위한 것인지, 떠난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현하는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은 비언어적 정보까지 동원하여 추론한 후에야 얻어진다. 이런 추론의 과정에서 정보를 인간이 처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특질이 관련성이다.

이런 관련성 이론의 바탕에서 Blakemore(1987, 1992, 2002)는 언어 형식이 나타내는 의미의 종류를 개념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로 나눈다. 개념적 의미는, 개념적 표상의 부분을 형성하고 소통된 메시지의 부분을 이룬다. 반면에 절차적 의미는, 청자가 화자 의미를 복원할 때 수행할 추론의 유형을 제약한다. 먼저 절차적 의미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Blakemore(1987: 106-108, 2002: 78-79)에서 보인 예를 소개한다.

(7) ㉠John can open Bill's safe. ㉡He knows the combination.

(8) 가. ㉠John can open Bill's safe. ㉡After all, He knows the combination.

나. ㉠John can open Bill's safe. ㉡He knows the combination, then.

(7)만 보면 ㉡가 어떻게 해석되기를 화자가 의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가 ㉠의 증거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8가)의 'after all'은 해당 절이 전제(premise)로 해석되도록 유도하고, (8나)의 'then'은 결과로 해석되도록 이끈다. 만약 이런 접속사가 없었다면 독자는 '설명, 증거, 결과' 등 관련성을 수립할 만한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 나섰을 것이다. 즉 접속사는 관련성을 맺을 만한 다른 관계를 배제하게 하고, 특정 해석으로의 추론을 유도하게 한다. Blakemore(1987: 77, 1989: 21)에서는, 화자는 마음속에 특정 해석을 가지고 청자가 이 해석에 도달하도록 청자를 이끌기로 결심할 수 있는데, 화자가 의도한 이런 효과에 이용할 수 있는 언어적 장치가 접속사라고 하였다(Rouchota 1996: 201).

Hall(2007: 158-159)에 따르면, 많은 화용론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발화의 의도된 해석을 복원하는 일은, 대개 의도된 문맥 정보에 접근하고 의도된 추론을 수행하는 데 달려 있다. 의사소통이 추론의 결과임은, 개념적 의미도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온전히 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청자는 의미보충(enrichment) 등을 통해 명제적으로 표상된 것 이상을 화자 의미로 복원해 내야 한다는 데서 확인된다.

개념적 정보라 하더라도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뿐, 사고를 완전히 부호화하는 데는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가 있다. 일례로 (9가)의 '행복하다'는 매우 모호한 개념을 부호화하지만, 실제로 사용될 때는 '오랜 만족'이나 '잠깐의 행복'처럼 보다 특정한 개념이 소통된다. 또한 (9나)는 과거 어느 시점에 뉴질랜드에

다녀온 것을 의미하지만, (9다)는 과거 어느 시점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으로 해석된다.

(9) 가. She is happy. (Hall 2007: 159)

나. I've been to New Zealand.

다. I've had breakfast. (Blakemore 1992: 81)

이상의 예들은 표현된 명제만으로는 화자 의미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Blakemore, Hall 등은 개념적 의미의 부호화는, 그 개념이 표현된 명제에 나타나야 한다는 정도로만 제약을 가할 뿐이며, 기호 해독의 결과는 추론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본다. 의사소통이 추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언어형식이 추론 연산의 입력원이 됨을 인정하면, 개념적 정보 외에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하는 언어형식이 있으리라는 가정이 충분히 타당해진다. 기호 해독된 개념적 표상이 추론 과정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언어표현들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문장의 개념적 표상이 문장들 사이의 어떤 관계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접속부사는 이를 채울 형식으로 기능한다. 이는 “그는 부자다. 그러나/그리고 그는 행복하다.”의 개념적 표상이 그저 ‘그가 부자이다’와 ‘그는 행복하다’의 합임을 생각해 보면 분명해진다.

### 3.2. 접속 대상의 다양성과 모호성

우리는 앞에서 의사소통이 추론의 과정이므로 절차적 의미의 언어 형식도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접속부사를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하는 형식으로 볼 만한 정황 증거를 하나 살펴본 셈이다. 이 절에서는 접속부사의 절차적 의미 분석을 지지하는 또 다른 증거로, 접속부사가 연결하는 대상이 그저 문장과 같은 담화의 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 전통문법이나 응집성 기반의 접근에서는 접속부사를 선행 문장이나 담화를 연결하는 장치로 분석해 왔다. 그러나 접속부사의 실제 쓰임을

보면 접속부사와 연결되는 의미적인 요소는 명시적인 명제 이면에 숨어 있는, 함축, 함의, 전제, 화행 등 아주 다양하다. 아래 예의 ‘그러나’와 ‘하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으나 실제 의미적으로 충돌하는 대상은 다 다르다. (10가)는 명제적 내용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 (10나)는 일명 ‘기대 부정(denial of expectation)’의 용법으로, ‘말이 힘을 다해 걷어차면 말발 위에 오르기가 어렵다’는 보편적인 결론과 충돌한다. (10다)의 ‘후회하다’와 ‘알다’는 내포질의 사태를 전제하는 대표적인 전제 유발자(presupposition trigger)인데, ‘후회하다’ 구문의 전제인 ‘그 사람을 그토록 사랑했다’와 ‘알다’ 구문의 전제인 ‘난 진심으로 좋아했던 적이 없다’가 충돌하고 있다. (10라)는 ‘결혼식 사진’이 가지는 함의인 ‘결혼했다’와 충돌하는 예이다. (10마)는 Sweetser(1990: 101)에서 첫 번째 문장의 요청/명령의 화행이 두 번째 문장에서 철회되는, 화행 영역에서의 충돌로 제시한 예이다.

(10) 가. 어제는 비가 내렸다. 그러나 오늘은 아주 화창하다.

나. 말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있는 힘을 다해 걷어찼다. 그러나 마관은 말발 위에 사뿐히 올라앉는 것이 아닌가.

다. 나는 그 사람을 그토록 사랑했던 걸 지독히 후회했다. 그러나 새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난 진심으로 그를 좋아했던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라. A: 자, 여기 너의 형 결혼식 사진이야.

B: 어? 하지만 우리 형은 결혼한 적 없는데.<sup>8)</sup>

마. 그 전화번호 좀 찾아봐 주세요. 하지만 몇 분 이상 걸리면 그냥 두시고요.

이들은 (10가)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문장( $S_2$ )이 선행 문장( $S_1$ )의 비명시적인 해석에 연결되고 있다. Fraser(1999: 942-944)에서도 담화표지

8) ‘하지만’과 ‘그러나’는 실제 용법이 조금 다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는 ‘그러나’가 구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현상을 고려하여 ‘하지만’의 예를 가져왔다.

‘but’이 첫 번째 문장의 함축 명제, 전제 명제, 함의 명제 등에 연결됨을 보이고, Schiffrin(1987)의 주장과는 달리 담화표지가 의미 관계를 내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Blakemore(1992)와 Fraser(1999)에서 제안한 것처럼 S<sub>2</sub>의 해석의 범위를 부과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담화표지와 같이 절차적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은 자신이 도입하는 담화가 앞의 것에 비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명세한다고 하였다.

위의 예들은 ‘그러나’가 무엇과 충돌하는지가 비교적 분명한 것들이다. 그러나 실제 접속부사가 쓰인 문례를 보면 무엇과 연결되는지 선뜻 지목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다. 상당히 고심한 후에야 연결 대상을 지목할 수 있다는 것은, 접속부사의 의미적인 기여가 개념적인 것보다는 절차적인 것에 가까움을 방증한다.

(11) A: 스티브가 나쁜 게 아니야. 여자 애들한테 인기 있는 남자 애들은 그럴 수도 있어.

B: 아무튼 나를 위로하려고 애쓸 것 없어. 나 이제 그만두겠어. 여태까지도 혼자 잘 살아왔는데 뭐, 그렇지만 정말 스티브 미워 죽겠어.

위에서 ‘그렇지만’이 연결하는 선행요소가 무엇인지는, 명시적으로 기술하기 어렵다. 연결된 것이 선행 발화 전체에서 추출할 수 있는 내용, 즉 [난 괜찮다]일 수도 있고 [위로 필요 없고 잘 지낼 것이다]일 수도 있다. 혹은 [스티브가 없어도 살 수 있다]나 [스티브 없이 잘 지낼 것이다]와 같은, 선행 담화 이면의 기대나 함축에 연결된 것일 수도 있다. 이 중 어떤 것도 연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할 근거는 없다. 연결 대상으로 지목할 만한 해석이 다양하고 대개 비명시적이라는 사실은, 접속부사의 기능을 문장 간 연결이나 맥락 연결처럼 언어적 개체를 ‘연결’하는 장치로만 이해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사실 일부 논의에서 써 온 ‘맥락 연결’이라는 표현도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sup>9)</sup>

9) 김미선(2002: 30-32)에서는 접속부사의 ‘문맥 연결의 기능’ 아래, ‘그러나’가 연결하는 단위는 단어, 구, 문장을 외에, 신문 표제어 “그래서 LG”처럼 언어 사용자의 세상일에

접속부사가 연결하는 대상이 해석에 따라 후행 문장 하나거나 복수의 문장 혹은 단락 전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 예에서 ‘하지만’이 바로 뒤의 문장과 연결된다고 보면, 선행발화의 [9시까지 들어올 것이다]라는 함축된 결론과, 후행발화의 [9시까지 못 들어올 수 있다]라는 함축된 결론이 충돌하는 예가 된다.<sup>10)</sup> 혹은 [별일 없으면 9시에 들어온다]와 [별일 있으니 못 들어 올 수 있다]가 충돌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 ‘하지만’이 후행 발화 전체와 연결된다고 보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보면, [보통은 9시쯤에 들어온다]와 [요즘 일이 많아서 오늘은 그때 들어올지 모르겠다]가 충돌하는 예라고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든 이 담화의 이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 A: 메리가 오늘 밤 9시까지 들어올까?

B: 거의 항상 그때쯤이면 들어오긴 해. 하지만 요즘은 도서관에 일이 많아. 그래서 모르겠어.

접속부사가 연결하는 선행 요소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찾을 수 있다. 의미적으로 다음 (13)의 ‘하지만’과 연결되는 선행 요소는 ①이거나 ①과 ② 전부이지, 적어도 ②와만 연결되지는 않는다. 해석상으로는 더 복잡하다.

---

대한 지식이 고려된 전체적인 맥락에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한송화(2016: 228)에서도 접속부사가 단순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나 담화 차원의 맥락을 연결한다고 기술되고 있다. 아마도 ‘맥락의 연결’이라는 표현 속에는 본고에서 문제 삼고 있는 선행행 발화나 담화가 제공하는 다양하고 비명시적인 해석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짐작하지만, 이와 관련한 분명한 기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우에 따라 ‘맥락의 연결’이라든가 ‘문맥의 수식’과 같은 표현에서 문맥이나 맥락이 두 문장 이상을 연결할 때를 가리키는 술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이런 표현 뒤에 제시된 예가 단락 간 연결이나 접속부사 앞뒤로 여러 문장이 연결되는 예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Sweetser(1990: 101)에서 전체의 충돌로 제시한 예인데 한국어로 바꾸어 보았다. 원문은 이러하다. “Do you know if Mary will be in by nine this evening? Answer: Well, she’s nearly always in by then, but (I know) she has a lot of work to do at the library, so I’m not sure.” [메리는 대개 그때까지는 들어온다]와 [메리는 도서관에서 할 일이 많다]는 두 전제가 충돌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앞의 전제는 9시까지 귀가하리라는 결론을 지지하는 반면, 뒤의 전제는 그렇지 못할 거라는 결론을 지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이 충돌하는 것은, [㉠ 개방 추진 세력은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나서지 못해왔으므로 ㉡북한의 경우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하기 쉽다]와 [북한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 혹은 [그간의 사례로 비추어 ㉢북한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와 [북한은 그러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일 수 있다. 그런데 ㉠은 선행 문장들에 표현된 것이지만 ㉡부분은 ‘하지만’ 이후의 문장까지 고려하여 청자가 보충해내야 하는 정보이다. 연결 대상으로 지목할 만한 해석의 단서가 선행행 담화 전체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것들의 일부에 올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상당한 양의 의미보충을 해야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예가 많다는 점은, 접속부사가 절차적인 정보를 담은 형식일 가능성을 더욱 지지한다. 연결의 대상을 찾고 해석의 범위를 좁히는 과정은 문맥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 (13) ㉠개방 추진 세력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표면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그쪽 사회의 한계입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실권을 잡기까지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요. ㉢하지만 북한에 1백 30만의 ‘배운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앞으로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접속부사의 이런 쓰임들을 의미 자질의 집합인 개념적 의미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Hall(2007: 153-154)에서도 영어 ‘but’의 여러 용법이 모두 절 사이의 대조를 포함하는 것처럼 보여 ‘but’은 ‘대조(CONTRAST)’ 개념을 부호화한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호소력이 별로 없다고 한 바 있다. 첫째, Blakemore(1987: 134-137)의 지적대로 ‘대조’가 있음직한 절 사이에 늘 ‘but’이 올 수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독일의 수도가 어디야? 본? 베를린?”이라는 질문에 “It’s Berlin now, {whereas, in contrast, \*but} Bonn was only capital of West Germany.”와 같은 대답에서는 ‘but’이 불가능하다. 둘째, “She is not my sister, but my mother.”와 같은 정정

(correction) 용법은 ‘대조’로 설명하기 어렵다. 누군가의 엄마인 것과 누군가의 누나가 아닌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절차적 의미는 이들 용법을 아우를 수 있는가. 접속부사의 절차적 의미는 청자가 수행할 추론의 유형에 제약을 가할 뿐 정확한 해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정확한 해석은 추론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문맥 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but’은 선행 담화의 어떤 면과 대조하고 가정을 제거하라는 추론 과정과 연결되고 ‘so’는 결론을 이끄는 추론 과정과 연결된다(Blakemore 1992). 이런 접근의 본질은, 접속사가 의도된 특정 추론 과정을 가리킴으로써 의사소통의 추론 단계를 제약한다는 데 있다. Hall(2007: 155-156)의 지적대로, 의도된 의미를 복원할 때 청자가 많은 양의 추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추론 경로용 언어적 장치가 있다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적 의미의 역할은 관련성 이론의 가정과도 잘 부합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는데, 절차적 의미의 장치들은 의미해석의 가능한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청자의 처리 노력을 줄여 준다는 점이 그러하다.

다만, 접속부사의 절차적 의미기능을 지지하는 연구에서 기술해 온 것과는 달리, 접속부사가 S<sub>2</sub>의 해석의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앞의 (13)의 예도 그런 경우인데, 접속부사가 유도하는 추론은 S<sub>1</sub>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 (14) ①역사는 잃어버린 조각이 많은 대규모의 그림 퍼즐이라고 불리어 왔다. ②그러나 주된 고민은 누락에 있는 것이 아니다. ③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의 모습이 불완전한 것은, 많은 사실이 우연히 누락되었다는 데 주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것이 아테네 시의 주민 가운데 극히 소수에 의해서 형성된 모습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위의 예는 ‘그러나’가 후행하는 여러 문장을 함께 연결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문장 ①과 나머지가 아니다. [누락



된 사실이 많다는 것이 역사의 고민이다.]와 [실제 고민은 역사가 극히 소수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정도가 연결된 것이다. 후자는 문장 ②, ③을 함께 고려해야 파악할 수 있는 해석이고, 전자는 적어도 ②를 고려한 후에 도달할 수 있는 해석이다. ①이 가질 수 있는 해석은 여러 가지이다. 일례로 문맥에 따라 ‘대규모의 그림 퍼즐’이 해석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14)에서 이런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문장 ②의 영향이다. ②에 대한 고려 없이, ①문장의 의도와 해석의 범위가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접속부사의 의미의 종류를 이처럼 절차적인 것으로 보면, 그간 접속부사의 용법 각각에 할당되었던 의미에 대해서도 재고할 여지가 생긴다. 일례로 김미선(2002: 54, 73)에서는 ‘그리고’의 의미의 하나로 [양보]를, ‘그러나’의 의미의 하나로 [예외]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양보]와 [예외]는 ‘그리고’와 ‘그러나’가 제약하는 추론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자에게는 (15가)에서 [양보]나 (15나)에서 [예외]의 의미가 잘 읽히지 않지만, 만약 이런 의미로 읽힌다면 이는 ‘최선을 다해 노래하면 음정과 박자가 좋아질 것이다’라거나 ‘무엇에도 양보하는 편인데 그 날 하루 달랐다면 이는 예외적인 일이다’라는 종류의 세상 지식이 관여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이들 접속사 없이 선후행 문장만으로도 얻어지는 해석일 것이다.

(15) 가. 순식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최선을 다할수록 음정과 박자는 더욱 엉망이 되어갔다. (최인석, 《노래에 관하여》)

나. 나는 무엇에도 양보하는 편이었고 그것은 적극성이 부족한 나의 성격 탓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와 다투어야 했다. (이균영, 《살곳이다리》)

접속부사가 지시하는 추론의 유형과 이런 추론에서 산출되는 문맥 해석을 혼동하는 일은 사전 기술에서도 발견된다. 일례로 《고려대사전》에서는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의 네 번째 의향으로 ‘뒤 내용이 앞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을 둔다. 다음 (16가-다)가 제시된 예문이다. [조건]은 이들 접속부사가 지시하는 추론의 유형이 아니다. 이들은 앞에서 잠깐 살펴본 ‘그러나’처럼, 선행 문장의 어떤 면이든 상충하도록 해석하라는 표시일 뿐이다.

- (16) 가. 이제 좀 쉬도록 해. 그러나 너무 나태해지면 안 된다.  
 나. 이걸 모두 해야 해. 그렇지만 혼자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다. 지금부터 노래를 부르자. 하지만 작은 소리로 부르는 거야.  
 라. 좋아, 너도 나갔다 와라. 하지만 나는 안 간다.  
 마. 좋아, 내가 참석할게. 그러나 연설은 안 해.

(16가)는 [이제 쉬어라]가 함축할 수 있는 해석의 하나인 [나태해지다]와, (16나)는 [이걸 모두 해야 한다]가 함축할 수 있는 [혼자서 다 하다]와, (16다)는 [노래를 부르다]가 함축할 수 있는 [큰 소리로 부르다]와 충돌하거나 이런 함축을 거부하도록 추론하면 도달되는 해석이다. 대개 선행문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일 때 이런 해석이 도출되는 듯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우연한 것이기에 독립적인 용법이기는 어렵다. (16라)에서 보듯이 선행문이 명령문이어도 후행문이 늘 조건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평서문이 쓰인 (16마)와 같은 예는 [조건]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접속사 자리에 유사한 추론 유형의 ‘그래도, 그런데’를 넣어도 이런 해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조건]이 문맥 의존적 해석임을 방증한다. 같은 사전에서 ‘그래도’는 ‘앞 내용을 받아들일 만 하지만 그럴 수 없거나 그렇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어구나 문장을 이어주는 말’로만 풀이되고 있고 ‘그런데’에는 이 [조건]의 의향이 없다.

이 외에 접속부사와 관련한 문제제기에는 이들의 수식 기능이나 성분성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있어 왔다.<sup>11)</sup> 이희자(1995: 228)에서는 접속어는

11) 임유중(1996: 188-198)에서는 부사의 전통적인 정의인 ‘용언류를 수식하는 성분’에 맞지

서술어에 종속되지 않기에 문성분이 아니며 수식어로서의 기능보다는 문장을 있는 것이 그 중심 기능이므로 문장 층위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또한 임유중 외(2001: 197-198)에서는 접속사가 후행 용언이나 종결어미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접속사의 수식 범위에 대한 종전의 설명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수식 범위는 후행 문장이 아니라 후행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문장 내 성분으로 보기에는 독립어적 성격이 강한 것도 맞고, 이런 이유의 하나가 수식의 범위가 후행 문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도 맞다. 그러나 후행 성분에 대한 결합제약이 없기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문장부사 중에는 후행 요소와 결합 제약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례로 ‘솔직히’와 같은 화행부사는 후행 문장에 별 제약이 없다. 반대로 접속부사가 문장유형을 제약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그래서’는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잘 쓰이지 못하고, ‘그러므로’는 주로 평서문에 쓰인다.<sup>12)</sup>

접속부사의 수식 기능이 두드러지지 않는 데는, 이들이 선행 요소와도 관련을 맺는 형식인 점이 작용한다. 한국어의 경우 지시용언에서 문법화한 접속부사가 많고 문맥에 따라 접속부사인지 대용어인지 여전히 그 구분이 쉽지 않은 것도, 이런 점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장 간(혹은 단락 간) 의미 관계를 추론하려면 연결된 선행 요소를 찾아내야 하는데, 접속사가 별로 없는 언어의 경우에는 대용어를 씌으로써 연결된 선행 요소를 찾으라는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사실 접속사의 역할이나 문두 대용어의 역할은 별로 다르지도 않다. 실제로 ‘그렇지만’ 등을 대용어로 해석하든 접속사로 해석하든 의미 해석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점에서 ‘그러나’류가 ‘지시하고 대용하는 기능과 잇는 기능을 하는 곳’에 쓰인다는 지적(이희자 1995: 230, 신지연 1998, 김미선 2002:

---

않는 문장부사는 부사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수식어를 성분수식어와 문장수식어로 나누고 부사와 관형사는 성분수식어에 두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의 존재는 범언어적으로 보편적이므로, 굳이 이런 체계를 세워야 할 근거는 별로 없다.

12) “솔직히 {난 인정하지?, 너도 인정하지?, 우리 인정하자, 너도 인정해라}” “엄마는 못 가진 데. ?그래서 {내가 가라, 우리가 가자}”

30)은 한국어 접속부사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기술이라고 생각된다.

### 3.3. 절차적 의미의 종류와 진리조건에의 기여

우리는 앞에서 접속부사가 추론의 유형을 안내하는 절차적 정보를 담는 형식임을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후속 질문으로 다음을 다룬다. 첫째, 접속사의 절차적 의미로 제안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접속부사가 보이는 유의어 간의 차이와 다의어 의항의 차이는 절차적 의미보다 개념적 의미를 지지하지는 않는가. 둘째, 접속부사는 늘 생략이 가능하며 늘 진리조건과는 무관한가.

접속부사의 절차적 의미로 그 동안 제시된 종류는 상당히 소략한 편이다. 연구의 역사가 짧기도 하고, 대상으로 삼은 접속부사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장 선구적인 논의인 Blakemore(1992: 137-143)에서는 청자가 어떤 발화를 해석할 때, 발화의 정보가 해당 문맥과 관련성을 맺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고, 언어는 이와 관련된 담화 연결사로 청자의 해석을 제한하는 구조를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일례를 들면 “팬케이크 만들까?”라는 물음에 “I haven’t really got time tonight. Besides there’s no milk.”라고 답했다고 하자. 첫 문장의 ‘시간이 없다’는 [팬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가정을 도출하는데, ‘besides’ 문장은 여기에 추가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가정을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sup>13)</sup>

• 문맥적 함축의 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예) 문맥 함축 도입의 연결사 so, therefore 등

• (더 좋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존재하는 가정을 강화할 수 있다.

13) 물론 이것이 절차적 의미 유형의 전체 목록은 결코 아니다. Blakemore(1992)는 이 외에 ‘also, too’ 등이 포함된, 선행 발화가 제시하는 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관련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평행 함축(parallel implication)도 제시하고 있다. 평행 함축의 경우는 “Simon has also got a laser printer.”와 같은 예에서 ‘also’의 사용은 선행 발화로부터 도출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문맥 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발화가 처리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예) 강화와 관련된 연결사 moreover, besides 등

· 존재하는 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예) 부정 도입의 연결사 however, nevertheless 등

한국어의 접속부사를 위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대강 이리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접속부사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그래도,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렇지만, 그리고, 그리하여, 단, 따라서, 이리하여, 하기는, 하기야, 하물며, 하지만, 썬, 연이나, 연중에, 연즉, 하건만(북한어)’이 전부이다. 이 중에서 문맥 함축을 도출하는 제1부류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므로, 그리하여, 이리하여, 연즉’,<sup>14)</sup> 가정을 강화하는 제2부류로는 ‘그리고, 하기는, 하기야, 하물며, 연중에’,<sup>15)</sup> 가정을 거부하는 제3부류로는 ‘그래도,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연이나, 하지만’ 정도를 들 만하다.

유형 분류에 들지 못하고 남은 것에는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 접속 부사’로 기술되는 ‘단’이 있다. 이 외에, 연구자에 따라 접속부사에 넣기도 하는 ‘그러다가, 그러더니, 그러면서, 그러자, 그렇다고, 그래야, 그렇더라도, 그렇기에’ 등이나 부사로만 표시되어 있는 ‘게다가, 더욱이, 또한, 한편’ 등,<sup>16)</sup> 추후에 추가될 접속부사까지 포함하면 절차적 의미의 종류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절차적 의미의 종류나 수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아마도 다음 두 가지일

14) ‘이리하여, 그리하여’는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임을 나타내거나 앞 내용이 발전하여 뒤 내용이 전개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 기술되고 있다. 절차적 의미의 종류를 더욱 세분화하면 달리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단 지금의 분류에서는 제1부류로 넣어 두었다.

15) 사전에서 ‘하기야’는 ‘실상 적당히 말하자면’의 뜻으로, 이미 있었던 일을 긍정하며 아래에 어떤 조건을 붙일 때에 쓰는 접속 부사, ‘하기는’은 ‘실상 말하자면’의 뜻으로, 이미 된 일을 긍정할 때에 쓰는 접속 부사, ‘하물며’는 그도 그러한데 더욱이.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의 접속 부사로 기술되어 있다. 앞의 일을 긍정할 때에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화 장치로 분류하였다.

16) 고려대사전에서는 ‘더욱이, 게다가, 또한, 한편’ 모두 이어주는 말로 풀이한다.

것이다. 첫째, 절차적 의미의 한 종류 안에 다수의 접속부사가 포함되는데 이들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째, 하나의 접속부사가 두 개 이상의 절차적 의미에 속해도 되는가. 결국 이들은 유의관계의 접속부사가 있고 복수 의향을 가진 다의여성 접속부사가 있다는 사실이 절차적 의미 분석보다는 개념적 의미를 지지하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것이다.

먼저, 유의관계의 접속부사들의 차이가 아직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차이가 개념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예를 들어 ‘그러나’와 ‘그렇지만’을 보자. 다음은 (10)에서 ‘그러나’의 예문으로 다루었던 것 중에서 ‘그렇지만’으로의 대체가 어색한 예만 가져온 것이다.

(17) 가. 나는 그 사람을 그토록 사랑했던 걸 지독히 후회했다. {그러나/  
          ?그렇지만} 새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난 진심으로 그를 좋아했던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 그 전화번호 좀 찾아봐 주세요. {하지만/\*그렇지만} 몇 분 이상  
          걸리면 그냥 두시고요.

이 문맥에서 ‘그렇지만’이 어색한 이유는 여러 방면으로 탐색이 가능하다. 먼저 ‘그렇지만’이 ‘그러나’와는 달리 전제나 화행과 대립하는 용법으로는 잘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그렇지만’의 의미 기술인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립될 때 쓰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서 어색해진 것일 수도 있다. [사랑했던 걸 후회했다]를 ‘인정하면서’ 그를 좋아했던 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가 접속부사의 의미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접속부사는 지시용언에 연결어미가 결합되는 형태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연결어미에서 비롯되었을직한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비슷한 예로, ‘앞 내용을 긍정하며 뒤 내용을 이어 갈 때 쓰여 이어 주는 접속부사’인 ‘하기는’이 있다. 이런 두 가능성 중에서 무엇이 ‘그렇지만’이 어색해지는 이유인지는 문제를 다 살펴본 후에야 밝혀질 만한 것이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절차적 의미와 다르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개념적 의미로 설명해 온 전통이나 이점도 확인된 바 없다.<sup>17)</sup> 요컨대 이런 유의어들이 존재가 절차적 의미로의 분석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의 접속부사가 복수의 추론 유형을 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당연히 가능하다. 접속부사도, 언어형식이라면 응당 겪을 법한 분포의 확장이나 용법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의성을 가질 수 있다. 일례로 ‘그런데’는 선행 문장이 상반될 때와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이는데, 이 둘은 동일한 추론 유형일 수 없다.

이제 이 절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접속부사는 늘 생략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접속부사는 늘 진리조건에는 기여하지 않는가 혹은 늘 절차적 의미만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접속부사의 생략 가능성을 보자. 접속부사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문장 내 성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생략이 가능하다. 실제로 코퍼스에서 접속부사가 쓰인 문례를 찾아 이를 지우면, 문장/발화의 흐름이 유창하지 않은 느낌을 주기는 해도, 의미 해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접속부사를 되도록 쓰는 것이 좋은 환경은 분명히 존재한다. 연결된 두 담화 단위의 의미 연결이 문맥상 여러 개가 가능해서 큰 시행착오 없이 의도한 해석으로 이끌 필요가 있을 때가 그러하다. 예컨대 A와 B의 연쇄가 ‘원인-결과, 전제-결론, 결과-증거’ 등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화자가 의도한 의미에 맞게 접속사를 써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경우로는 두 담화 단위의 먼 의미적 연결 때문에 추론이 쉽지 않아 단서가 절실할 때이다. 신지연(2005: 25)에서도 선행문 사이에 의미 연결 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경우에 접속어가 사용될 것이 기대된다고 한 바 있다. (20나)

17) 접속부사의 사용 조건에는 의미적 제약 외에, 결합하는 문장 유형의 종류나 문장에서의 위치와 같은 문법적 제약도 있다. 또한 구어체, 문어체, 격식체, 비격식체 등의 조건도 있다. 영어에서도 접속사 간의 차이는 있다. 일례로 ‘so’는 ‘therefore’로 늘 바뀔 수 있지만 반대는 안 될 때가 있으며, ‘moreover’와 ‘also, too’의 차이는 후자는 초점 표시 등 더 다양한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Rouchota 1996: 208-210)

는 세종 말뚝치 강의 녹취록에서 가져온 것인데, ‘그래서’가 있는 것이 의미 해석에 용이하다.

(18) 가. 나무를 정성껏 가꾸었다. 그러나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았다. (신지연 2005: 25)

나.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시어머니 체제에서 살아 남았구 그런 가치를 내면화시키면은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머느리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사유가 사실 거기에 존재도 들어가지만 계속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존재와 사유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의식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인제 사회의 뭐, 평등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접속부사가 진리조건과 무관하다는 근거로 “그는 부자다. 그러나 행복하다.”와 같은 예에서, ‘그러나’를 ‘그리고’로 바꾸어도 진리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왔다. 세상 밖의 사태가 그가 부자이고 그가 행복하면 이 문장은 참이기 때문이다. Grice(1975)는 접속사가 진리조건에는 기여하지 않지만, 고정함축으로서 ‘말해진 것(what is said)’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접속사의 의미를 개념적 표상에는 포함시킨 것이다. 반면에 관련성 이론의 연구자들은 절차적 의미를 개념적 표상과는 구분하면서 화자가 의도한 의미에는 포함한다. 위의 예의 경우 ‘부자는 보통 안 행복한데 그는 부자인데도 행복하다’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일 것이다.

접속부사는 늘 절차적 의미만 가지는가.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듯하다. Fraser(2006: 25-28)은 다음과 같은 검증법을 통해, 담화 연결사가 개념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만 제시되고 별도의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따라서(thus)’가 둘째 문장이 선행 문장에서 추론된 결론으로 기능함을 표시하는데, (19나)에서 보듯이 이 관계가 거짓이라고 단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개념적 표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 (19) 가. 물이 안 끓을 것 같아. 따라서 우리는 차를 만들 수 없어. (The water won't boil. Thus, we can't make tea.)  
 나. 그건 틀렸어. 차를 만드는 데 물이 끓어야 하는 게 필수적이지 않아. (That's not true. It isn't necessary for the water to boil to make tea.)

Blakemore(1992: 80)에서는, Grice와 그의 추종자들이 접속사의 의미를 함축으로 다루지만 Cohen(1971)이 보인 것처럼 접속사가 명제의 일부 분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예들이 있다고 하였다. 만약 시간적 내포가 함축이라면 'P & Q'와 'Q & P'는 동가여야 하는데 아래 예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이다.

- (20) If the old king had died of a heart attack and a republic has been declared, then Sam will be happy, but if a republic has been declared and the old king has died of a heart attack, then Sam will be unhappy.

본고는 오로지 개념적 의미만이 명제적 내용에 포함된다거나 혹은 참/거짓의 판단 대상이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객관 세계에 대한 지시가 아닌, 사태의 인과관계나 사실의 논리관계가 중요한 세계에서는 절차적 정보도 개념적 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 위의 예도 'and'와 'then'이 절차적 의미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다. 절차적 의미 기능은 간직한 채, 다른 문례와는 달리 문장 전체의 참과 거짓에 관여하고 있을 뿐이다. 개념적 의미만이 명제 내용에 포함된다는 태도는 진리조건 의미론의 영향이다. 논리적 선후관계 등 절차적 정보가 진리치와 직결되는 문맥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무엇보다 개념적/절차적 의미가 그대로 진리조건적/비-진리조건적 의미로 이어진다면 이는 순환론이다. 이들은 같은 것이 아니다.

#### 4. 접속부사, 담화표지, 메타담화

접속부사와 관련된 다른 범주로는 담화표지와 메타담화가 있다. 접속부사가 간투사와 같은 쓰임을 보일 때 담화표지가 되었다고 보는 논의가 있어 왔고, 메타담화 논의에서는 주요 성원에 접속부사를 둔다. 사실 담화표지나 메타담화는 ‘화용 첨사, 담화 연결사, 화용적 표현, 담화 운용소’ 등의 여러 술어로 불려온 전통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언어형식이 담화표지와 메타담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술어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접속부사도 그런 경우이다. 4.1.에서는 담화표지 개념이 과연 접속부사로서의 쓰임을 배제하는 것인지, 그간 접속부사의 본래 쓰임과는 구별된다는 이유로 담화표지로 분류된 것들이 진정 탈-접속부사적인 쓰임이 맞는지를 다룬다. 4.2.에서는 접속부사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메타담화의 종류를 소개하고, 이들 중 접속부사 유사 표현이 접속부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논의할 것이다.

##### 4.1. 접속부사와 담화표지

담화표지는 정의가 연구자마다 제각각이고 대상 범위도 너무나 다양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범주이다. 국내 논의에서도 사정이 비슷해, 담화표지가 무엇이며 어떤 형식이 이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유독 의견 차이가 큰 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형식이 담화표지가 되었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접속부사로서의 용법과 구별된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부각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접속부사는 담화표지를 다룬 초기의 논의에서부터 대표적으로 언급되던 성원이다. 다음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Fraser(1999: 933-937)에서 담화표지에 대한 주요 언급으로 소개한 것 중에서 일부를 추린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담화표지를 선행 발화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Brinton(1996: 30)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 화용첨사(본고의 담화표지)의 핵심 기능을, 선행 발화나 문맥에 대한 해당 발화의 관계나 관련성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기술한다고 하였다.

- Levinson(1983): 영어에, 틀림없이 대부분의 언어에, 한 발화와 이전의 담화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많은 단어와 구들이 있다. ‘but, therefore, in conclusion, to the contrary’ 등의 문두 용법들이다. 이들은 해당 발화가 선행 담화의 응답, 지속, 일면이 됨을 가리킨다.
- Schiffrin(1987): ‘연쇄적으로-의존적인 담화의 단위’를 표시하는 요소가 담화표지이다. ‘and, but, I mean, now, oh’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들이 담화의 응집성에 기여하는 방식이 주된 관심사이다.
- Fraser(1999): 담화표지란 문맥에 의해 풍부해질 수 있는 핵심 의미를 가지고, 앞선 발화와 담화표지를 담은 발화 사이에 의도한 관계를 표시하는 형식들을 가리킨다.

물론 이들 외에, 대화의 연속성을 얻기 위한 수단, 응대 표시, 대화의 층위 전이에 사용되는 구조적인 신호 집합,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장치 등, 이들 외의 정의가 더 있기는 하다(Brinton 1996: 30-31). 그러나 어떤 식으로 정의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선행 담화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요소’라는 정의가 담화표지에서 제외될 일은 없어 보인다. ‘and, but, therefore, moreover’ 등은 ‘y’know, I mean, well, oh’ 못지않게 담화표지의 예로 언급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어 논의에서 ‘그러니까’가 구어에서는 접속부사보다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기술이나, 접속부사들이 담화표지로서 텍스트 전개나 결말의 표지로 사용되는 양상을 기술하는 논의 등은,<sup>18)</sup> 어떤 면으로는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접속부사가 제외되는 담화표지의 정의를 새로 세우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 문제의식이기 때문이다.

접속부사와 담화표지를 다른 것으로 보아온 데는, 연구자마다 채택한 담화표지의 주요 특징이 관련되어 있다. 의미의 변화와 기능의 전이를 근

18) 강소영(2009)는 ‘그러니까’가 접속부사가 아닌 담화표지로 쓰일 때를 논의한 것이다. 차윤정(2000)에서는 텍스트 구조와의 관련성을 통해 이음말이 어떤 담화표지 기능을 가지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개 표지에 쓰이는 접속부사, 결말 표지에 쓰이는 접속부사, 구어 텍스트에서의 이음말의 담화표지 기능을 살펴보고 있다.

거로 해서 담화표지화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준이라면 접속부사처럼 본래의 쓰임대로 쓰이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제외된다. 의미 탈색이 담화표지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은 맞다. 예컨대 ‘you know’처럼 어떤 정보가 화청자 상호 간의 지식임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구성으로 굳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두 기준이 모든 담화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래부터 담화표지로 쓰인 언어형식은 없어야 하고 범언어적으로 담화표지의 역할이 상당히 후대에 필요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접속부사뿐만 아니라 ‘oh, uh, ah’ 등도 의미 변화나 기능 전이를 겪은 형식은 아니다. 이 밖에 담화표지가 고유 의미가 없는 형식으로 간주되어 온 것도 관련이 있다. 담화표지의 주요 특징에 의미가 비어 있음이 언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휘 형식들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고, 공통적으로는 명제적 내용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oh’와 ‘well’은 분포가 다른데, 대체될 수 없다면 이는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담화표지의 정의에 의하면 접속부사는 담화표지의 분명한 성원이다. 사실 접속부사에서 담화표지로 기능 변화를 겪었다는 용법 중에도 접속부사의 원래 쓰임으로 볼 만한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선행 발화 없이 쓰이는 접속부사가 그러하다. 접속부사의 담화표지화를 논할 때 선행 발화 유무를 중요시하는 것은, 접속부사의 기능이 담화 단위를 연결하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2.2.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접속부사가 외현적인 선행 발화 없이 담화의 맨 앞에 쓰이는 일들이 있다. 다음이 그런 예들이다.

(21) 가. (부라부라 시험공부 하는 아이를 보며) 그러니까 공부 좀 미리미리 하랬잖아.

나. (나가는 아이를 보고 빨래를 하다 말고) 그래서 오늘 못 들어온다고?

다. (가지 말라고 매달려 우는 아이를 TV에서 보면서) 그래도 엄마라고. 으이그.

위의 예들은 현재의 발화상황에서 연결할 만한 발화가 없을 뿐, 연결할 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1가)의 ‘그러니까’는 과거에 ‘시험 때면 힘들 거야’라든가 ‘시험 때 몰아서 하면 힘들어’ 등과 같은 발화를 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을 내포한다. (21나)의 ‘그래서’도 같은 날이든 며칠 전이든 아이의 발화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21다)의 ‘그래도’는 TV 장면이 선행 발화의 역할을 한다. 요컨대 이들은 ‘암시적 선행 발화’를 가진 접속부사로서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접속부사가 가지는 절차적 의미의 효력이다. 지금까지 선행 발화가 없는 예들을 탈-접속부사적 쓰임으로 본 것은, 접속부사를 텍스트에서 문장들을 연결하는 응집성 장치로 보아 왔기 때문이다. 담화 단위를 연결하던 접속부사가 점차 선행 담화 없이(혹은 숨기고) 단독으로 쓰이는 변화는, 가능한 발달 경로이다. 그 절차적 의미 덕분에 단독으로 쓰여도 선행 발화의 존재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 발화가 없다는 이유로 담화표지로 분류되는 일은, 화제를 시작할 만한 위치에 쓰이는 접속부사를 담화표지 용법으로 판단하는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일례로 강소영(2014: 19-20)에서는 화제 심화나 발전, 화제의 일탈에 쓰이는 ‘근데’를 담화표지 용법으로 보고, 이런 환경에 ‘근데’가 쓰이는 것은 ‘그런데’가 가지는 ‘화제 전환’이라는 의미가 화제의 심화나 발전에 맞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2) 출연자: 그런 게//모든 게//그-//뮤지션의 음악과//동일시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그래서//일러스트레이터 ○○○씨라는 분과//  
우연히 연결되었어요.

사회자: 근데//우연히 발견하신 거라면서요. (강소영 2014: 20)

본고의 입장에서 위의 ‘근데’는 접속부사의 용법이다. 접속부사 ‘그런데’가 전형적으로 쓰일 만한 화제 전환 자리에 쓰인 예로 보이기 때문이다.<sup>19)</sup>

19) 어린 아이들이 말을 시작할 때 으레 사용하는 ‘근데(그런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접속부사가 화제의 시작에는 쓰일 수 없다면 전환관계의 접속부사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화제의 시작 표시나 화제 전환 표시도 선행 담화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이므로, 넓게는 담화표지의 일종이다. 그리고 언어에 따라 전담 접속사가 있을 수도 있다. 전환의 접속사를 선행 담화와는 별도로 새로운 추론을 시작하라는 장치라고 보면, 선행행 담화를 묶어 추론하라는 표시의 다른 접속부사들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접속사 대신 어떤 구성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발달하는 경우도 있다. 노은희(2012)에서는 ‘다름 아니라’는 화제 도입을 통한 화제 전환을, ‘그건 그렇고’는 화제 마무리를 통한 화제 전환을 나타내는 담화표지로 분석한 바 있다.

우리는 앞에서 담화표지는 선행발화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정의되어 왔다고 하였다. 이는 접속부사 외에도 선행발화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형식이 많으며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담화표지 논의의 문제는 어떤 형식을 담화표지로 명명하는 것이, 해당 형식의 의미적 기여가 명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외에 별로 말해주는 바가 없다는 데 있다. 이 술어가 너무 다양한 기능의 것들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접속부사처럼 선행행 담화 단위의 추론의 유형을 제약하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well’처럼 말차레를 유지하거나 선호되지 않는 답변을 표시하거나 일반적인 도입 장치로 쓰이는, 대화의 구조와 관련된 종류가 있기도 하고, ‘you know’처럼 대화참여자를 끌어들임으로써 관련을 맺는 종류도 있으므로, 기능별로 이들을 명명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적어도 접속부사의 담화표지화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고려대사전》에서는 접속부사 ‘그러니까’ 외에 감탄사의 ‘그러니까’도 별도로 인정하는데, 이를 수용하면 접속부사의 감탄사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예컨대 선행 맥락이 없음이 비교적 분명한 상황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을 ‘그런데’로 시작하는 경우는, 청자의 주의를 끌거나 자신이 말차레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환의 접속부사로서의 쓰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 4.2. 접속부사와 메타담화

접속부사가 성원으로서 취급되는 또 하나의 범주로는 메타담화가 있다. 메타담화란 ‘담화에 대한 담화’, 즉 담화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가리킨다. 일례로 영어의 경우, 텍스트 단계를 지시하는 ‘finally, to conclude’,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 있는 정보를 지시하는 ‘noted above, see Fig.1’,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I agree’나 청자를 끌어들이는 ‘you can see that’ 등이 다 메타담화의 예이다. 이런 메타담화의 사용은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을 정할 때 대화참여자의 필요와 기대를 고려하면 의사소통이 더 성공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진다(Hyland 2015: 1-2). 따라서 메타담화는 텍스트의 메시지에는 기여하지 않는, 진리조건 밖의 요소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텍스트에서 메타담화가 전혀 안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메타담화가 없을 경우 담화의 이해에 적잖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화자/필자가 담화를 어떻게 조직하고 분류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청자/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필수적이다.

메타담화와 그 대상과 기능이 상당 부분 겹치는 개념으로 메타커뮤니케이션도 있다. 의사소통은 말(speech)을 통해 의도된 사고를 교환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런 의사소통 과정 중에는 말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오탈자를 만난다거나 알지 못하는 단어를 만나면 해당 표현이 주는 사고가 아니라 단어 자체에 집중하는 일이 벌어진다. 화자가 자신의 담화에 대한 언급을 할 경우에도 메시지에서 잠깐 벗어나 자신의 담화의 구조 등으로 주의가 옮겨갈 수 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층위가 달라지는 일이다(Anton 1998: 198-99).<sup>20)</sup>

의사소통의 층위를 나누는 메타커뮤니케이션이나 메시지 차원과 담화의 조직/전달의 차원을 나누는 메타담화의 개념은, 접속부사와 접속부사 유사 구성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시사점이 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20) Hübler(2011: 108)에서 재인용. 이 두 개념 사이에는 공통되는 형식이 상당해서, 메타커뮤니케이션으로 뭉뚱그리던 것 중에서 일부가 이후에 메타담화로 분리 논의되기도 한다.

접속부사는 진리조건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담화 단위 사이의 추론에 관여하므로, 담화를 조직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만하다. 아래는 메타담화의 하위 종류로 분류된 것 중에서, 접속부사가 포함된 부류와 담화의 조직과 관련된 부류를 모아본 것이다.

- Hyland(2005, 2015: 3) 학술 텍스트에서의 메타담화 모델 중에서 일부  
 이행(질 사이의 의미 관계 표현) 예: in addition, but, thus, and  
 틀 표지(담화 행위, 순서, 텍스트 단계 지시)  
 예: finally, to conclude, my purpose is  
 주석(명제 의미 이해 보조) 예: namely, such as, in other words
- Dafouz-Milne(2007: 98) 텍스트적 메타담화 범주 중에서 일부  
 논리적 표지(담화 사이의 의미 관계를 표현)  
 추가: and, furthermore, in addition, moreover 등  
 역접: or, however, but 등  
 인과(consecutive): so, therefore, as a consequence 등  
 결론(conclusive): finally, in any case 등  
 순서 표지(시리즈 안에서의 특정 위치 표시): first, second,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등  
 주석 표지(설명, 환언, 예시)  
 환언 장치(reformulators): in other words, that is,  
 to put it simply 등  
 예시 장치(exemplifiers): for example, for instance 등

위에 따르면 접속사는 공히 절이나 담화 단위의 의미 관계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접속부사가 추론의 유형을 제약하는 절차적 의미의 형식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Hyland(2005)에서의 ‘틀 표지’는 텍스트 경계나 텍스트 구조적 요소를 지시하는 것들로, 순서를 가리키는 형식, 텍스트 단계, 담화의 목표, 화제의 전이를 가리키는 형식들



까지 포함하여 다소 넓다. Dafouz-Milne(2007)에서는 이를 순서 표지, 주석 표지 등으로 더 나누고 있다. 이런 식의 분류상의 차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기능을 보는 눈이 상당히 공통된다는 것이다.

그간 ‘요약하면, 말하자면, 첫째, 다음’ 등, 접속부사는 아니지만 텍스트에서 문장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형식들을 무엇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간혹 있어 왔다. 본고는 이들 예의 대부분은 메타담화로 ‘사용’된 것일 뿐 접속부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먼저, 이들의 상당수는 개념적 의미를 가진 것들로 접속부사와는 구별된다. 접속부사는 여러 번 언급했듯이 추론의 유형을 제약하는 절차적 의미의 형식이다. 그러나 ‘요약하면, 요컨대, 다시 말해, 환언하면, 첫째, 다음’ 등은 [요약], [환언], [제일 처음 순서], [이어지는 순서] 등의 개념적 의미를 가지는 어휘 형식이다. 이들은 메타담화로 쓰일 때에 한해 텍스트의 메시지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지, 다른 환경에서는 명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이들의 메타담화로서의 기능도 접속부사와는 다소 다르다. ‘요약하면, 요컨대, 다시 말해, 환언하면, 예를 들면, 예컨대, 말하자면’ 등은 필자/화자가 행하는 담화 행위를 지시하거나 ‘예시, 환언’과 같은 해당 담화의 문맥에서의 역할(자격)을 나타낸다. 혹은 독자가 명제적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필자가 제공하는 추가해설임을 표시한다. 이들이 문장이나 담화를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런 메타담화 기능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발휘되는 인상일 뿐이다. 이 외에 ‘우선,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등은 텍스트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나 단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들은 추론 장치가 아니라 화자가 내용을 어떻게 구획하는지를 알려주는 장치이며, 단계나 순서를 지시하기에 담화를 연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이회자 (1995: 238)에서 ‘말하자면, 반면에, 달리 말하면,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이를테면, 결국, 다음은, 왜냐하면’ 등에 대해, 어휘적 의미소 자체에 ‘접속’의 의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꼴이기에 접속어(우리의 접속부사를 포함한 개념임)와 구별한다고 한 점은, 본고의 입장과 비슷한 듯하다.

## 5. 결론

지금까지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접속부사의 주요 기능은 텍스트의 응집성 차원에서보다 절차적 의미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유용함을 살펴보았다.

먼저 접속부사를 응집성 장치로만 볼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텍스트의 응집성은 접속부사의 출현과 무관하게, 텍스트라면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텍스트성의 일종이다. 이는 접속부사를 생략해도 문장들이 서로 관련되었으리라는 청자의 가정에 따라 의미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데서 확인된다. 둘째, 접속사가 없는 선행행 문장은 의미관계의 적절한 해석이 전적으로 청자에게 남겨진 것일 뿐이며, 명시적인 연결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해석은 이를 뛰어넘는다. 셋째, 응집성 기반의 연구자들에게 접속사는 두 개의 담화 단위를 연결하는 형식인데, 접속부사는 연결 대상이 서로 인접하지 않을 때도 많고 명시적인 선행 담화가 없는 경우도 많다.

다음으로 접속부사가 절차적 의미, 즉 의미 해석의 추론 경로를 나타내는 형식임을 지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이 추론을 통해 이루어지고 언어형식이 추론 연산의 입력원이 됨을 인정한다면, 개념적 정보 외에 절차적 정보를 부호화하는 언어형식이 있으리라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개념적 정보라 하더라도, 화자의 ‘사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뿐 이를 완전히 부호화하지는 못하므로 추론을 통해 간극을 메워야 한다. 둘째, 접속부사가 연결하는 대상은 선행 문장이나 담화라기보다, 명제 이면에 숨어 있는 함축, 함의, 전제, 화행 등 아주 다양하다. 이처럼 후행 담화가 선행 담화의 비명시적인 해석에 연결되고 있는 현상은, 이들의 의미적 기여를 개념적인 것보다 절차적인 것으로 보게 한다. 개념적 의미는 의미 자질의 정의적 집합인 반면에 절차적 의미는 그것이 도입하는 담화단위가 앞의 것과 관련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명세하기 때문이다. 셋째, 절차적 의미는 청자가 수행할 추론의 유형에 제약을 가할 뿐, 정확한 해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이점이다. 넷째, 접속부사가 후

행 담화의 해석의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담화의 해석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 절차적 의미에서도 유의 관계 및 다의어가 가능하다는 점과, 접속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이 가능하지만 담화 단위 간 추론이 어렵거나 복수의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 쓰이는 것이 권장됨을 살펴보았다. 또한 담화표지의 정의에는 선행발화와와의 관계를 표시한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포함되므로, 접속부사의 담화표지화와 같은 표현이 원칙적으로 모순임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제시된 메타담화의 종류를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의 단계나 순서, 발화의 자격을 지시하는 메타담화 표현들은 추론의 유형을 지시하는 접속부사와는 의미의 종류 및 메타담화로서의 기능 면에서 구별된다고 하였다.

앞으로의 후속 과제는 분명하다. 먼저 한국어 접속부사가 표시하는 추론의 유형을 파악해야 하고, 유의 관계의 접속부사들 사이의 의미 차이의 종류를 찾아내야 한다. 다음으로, 접속부사가 부담 없이 생략될 수 있는 환경과 되도록 쓰는 것이 좋은 환경에 대한 탐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상적인 관찰이기는 하지만, 접속부사의 사용에는 선행행 담화의 길이, 이어지는 문장의 수, 텍스트 장르, 화자/필자가 상정하는 청자/독자의 수준, 개인의 문장 습관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따라서 비록 대표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접속부사가 쓰이는 조건을 최대한 망라하고 그 쓰임의 배경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참고논저

- 강소영(2009), 담화표지 ‘그러니까’의 사용에 내재한 화자의 담화전략 연구, 《어문연구》 60, 어문연구학회, 27-54.
- 강소영(2014), 화제 첫머리에 분포하는 담화표지의 실제, 《어문연구》 79, 어문연구학회, 5-30.
- 구종남(2000), 담화표지 ‘뉘’의 문법화와 담화 기능, 《국어문학》 35, 국어문학회, 5-32.
- 김미선(2002), 《접속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향화(2001),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한국학논집》 2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13-140.
- 노은희(2012), 본질적인 화제 전환을 위한 담화 표지 연구-“다름 아니라”, “그건 그 령고”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20, 화법연구학회, 39-69.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 박선자(1983), 《한국어 어찌말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서인(2014),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한 문장부사 하위분류, 《한국어 의미학》 44, 한국어의미학회, 89-118.
- 신지연(1998), 《국어 지시용언 연구》, 태학사.
- 신지연(2005), 접속부사 ‘그러나’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18, 한국어의미학회, 23-48.
- 신현숙(1989), “담화대용표지의 의미 연구-{그래서/그러니까/그러나/그렇지만}을 대상으로-” 《국어학》 19, 국어학회, 427-251.
- 안윤미(2012), 담화 표지 ‘그러게’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56, 한국어학회, 91-118.
- 안주호(1992), “한국어 담화표지 분석”, 《말》 1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1-38.
- 이봉선(1997), 접속사와 관련성, 《영어영문학》 23-1, 115-136.
- 이희자(1995), “접속어 연구 1” 《사전편찬학연구》 5, 6.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219-252, 253-281.
- 임유종(1996), “부사의 하위 구분 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14, 한국언어문화학회, 187-218.
- 임유종, 박동호, 홍재성 (2001), 접속부사의 구문론적 특징, 《언어학》 28, 한국언어학회, 177-209.
- 조원형(2013), 텍스트성 기준과 디자인 척도, 《텍스트언어학》 34, 텍스트언어학회, 207-232.

- 차운정(2000), 이음말의 담화표지 기능, 《우리말 연구》 10, 105-125.
- 한송화(2013), 한국어 접속부사의 사용 양상-텍스트 유형에 따른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3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원, 139-169.
- 한송화(2016), 한국어 부사 연구에 있어서의 쟁점과 과제-담화 화용적 관점에서, 《한국어 의미학》 52, 한국어의미학회, 223-250.
- 한희정, 한정환 (2016), 언어 사용역에 따른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 의미학》 54, 한국어의미학회, 175-202.
- Anton, Corey(1998), 'About talk': The category of talk-reflexive words, *Semiotica* 121-3, 193-212.
- Blakemore, D.(1987), *Semantic Constraints on Relevance*, Oxford: Blackwell.
- Blakemore, D.(1989), Denial and contrast: a relevance theoretic analysis of but.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15-37.
- Blakemore, D.(1992), *Understanding utterance*, Oxford, England: Blackwell.
- Blakemore, D.(2002), *Relevance and Linguistic Meaning: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inton, Laurel I.(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Cohen, L. J.(1971), Some remarks on Grice's views about the logical particles. In Y. Bar-Hillel (ed.), 51-68.
- Dafouz-Milne, Emma(2007), The pragmatic role of textual and interpersonal metadiscourse markers in the construction and attainment of persuasion: A cross-linguistic study of newspaper 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40, Elsevier B. V. 95-113.
- de Beaugrande, Robert Alain(2004), *A New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ext and Discourse*, 인터넷 공개(<http://www.beaugrande.com>).
- de Beaugrande, Robert Alain, Dressler, Wolfgang Ulrich(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gman. [김태옥 · 이현호 역(1991), 담화 · 텍스트언어학 입문, 양영각.]
- Fraser, B.(1999), What are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31, ELSEVIER B. V. 931-952.
- Fraser, B.(2006), On the conceptual and procedural distinction, *Style*, 40-1, 24-32.

- Gisela, redeker(1991), Linguistic markers of discourse structure, *Linguistics* 29, Walter de Gruyter, 1139-1172.
- Grice, P.(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Grice(1989/1991)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 Grice, H.P.(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Hall, A.(2007), Do discourse connectives encode concepts or procedures?, *Lingua* 117, ELSEVIER, 149-174.
- Halliday, M.A.K & Hasan, R.(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Horn, Laurence R.(1985), Metalinguistic negation and pragmatic ambiguity, *Language* 61-1, 121-174.
- Hübler, Axel(2011), Metapragmatics, In Bublitz, W., Norrick, N.R. (eds.) *Foundations of Pragmatics*, Walter de Gruyter, 107-136.
- Hwang, Y.(2012), *The Oxford Dictionary of Pragmatics*, Oxford.
- Hyland, K.(2005), *Metadiscourse*, London, UK: Continuum.
- Hyland, K.(2015), Metadiscourse,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Karen Tracy, Cornelia Ilie and Todd Sandel eds. John Wiley & Sons, Inc.
- Ifantidou, E.(2005),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meta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37, ELSEVIER B. V., 1325-1353.
- Khabbazi-Oskouel, L.(2013), Proposional or non-propositional, that is the question: A new approach to analyzing 'interpersonal metadiscourse' in editorisla, *Journal of Pragmatics* 47, ELSEVIER B. V., 93-107.
- Lakoff, R.(1971),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In Fillmore and Langendoen(1971),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15-149.
- Levinson, S.c.(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sner, R.(1980), Semantics and pragmatics of sentence connectives in natural languages. In J. Searle, F. Kiefer and M. Bierwisch (eds), 169-203.
- Rouchota, V.(1996), Discourse connectives: what do they link?,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8, 199-214.
- Sanders, T., Noordman, L.(2000), The role of coherence markers and their linguistic markers in text proccession, *Discourse Processes* 29.1, 37-60.

- Schiffrin, D.(1987), Discourse markers, *Studies in International Linguistics* 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rber, D., D., Wilson(1986/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 Sweetser, 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S., R. E. Longacre and Shinja J. Hwang(2007), Adverbial Clauses, In Shopen (ed.), Vol.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7-269.
- William J. & V. Kopple(2012), The importance of studying metadiscourse, *Applied Research in English* 1-2, 37-44.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2-880-6052

E-mail: suyeong@snu.ac.kr

투고 일자: 2018. 11. 07.

심사 일자: 2018. 11. 16.

게재 확정 일자: 2018. 12. 05.

The Study on Semantics of Connective Adverbs in the  
Korean Language, Based on Relevance Theory

[Mun, Suk-Yeong]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접속부사의 의미기능 [문숙영]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functions of conjunctive adverbs in Korean, based on Relevance Theory. In this paper, I agree with Blakemore's idea that conjunctive adverbs encode procedural, rather than conceptual information, and show several phenomena of Korean conjunctions to support her argument. Within coherence-based approach, conjunctions have been analyzed as linking units of discourse, displaying a relationship between two sentences. But it is more accurate to say that conjunctions relates the interpretation of  $S_2$  to a non-explicit interpretation, such as implied presupposition, entailments, implicatures, and speech act etc., as well as explicit interpretation of  $S_1$ . In other words, conjunctions impose on  $S_2$  a certain range of interpretations.

Key words: conjunctive adverbs, Relevance Theory, coherence, procedural information, conceptual information, presupposition, implicature, entailment, implicit interpretation.